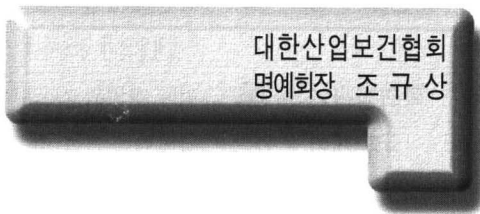


근로자 건강진단 유감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 조규상

1. 건강진단은 왜 하는가?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건강진단을 자주 받는다. 학교에 입학할 때, 군대에 입대할 때, 직장에 취직할 때, 그리고 노후에는 종합검진에 이르기까지.

건강진단은 그 목적에 따라 실시해야 할 내용이 달라진다. 취학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지, 직장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남에게 옮길 위험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다.

2. 건강진단으로 질병이 발견되는가?

질병발생은 그 원인 인자가 인체에 침입하거나 영향을 주어도 인체는 이에 대항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상 소견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어떤 위험에 폭로되어도 개인에 따라 이를 이겨내는 능력(소질 또는 면역)이 있

기 때문에 폭로량이 같다 하여도 일률적으로 발병하지 않으며 발병하여도 그 증세의 경중도 다르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질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인체에는 예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각적으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질병이 많아지는 중년이후에는 종합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때로는 여기서도 발견이 누락되는 수가 있다.

집단검진은 많은 인원을 제한된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하여 며칠씩을 두고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해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짧은 시간으로 건강을 진단한다는 것은 소홀하기 짝이 없는 일로 보인다.

그러기에 알고자 하는 표적질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선별검사(screening test)를 하여 1차로 유소견자를 걸러내게 된다. 그리고 여

기서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2차로 정밀검사를 하여 질병유무를 확정짓게 된다. 그러므로 선별검사는 감수성과 특이성이 높은 것 이어야 한다.

3. 집단검진은 효율성이 있는가?

집단검진의 대상은 적어도 외견상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와는 다르다. 집단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유병자는 5%내외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 집단검진을 하는 것이 Cost-benefit로 볼 때 좋은 방법인가 하는 비판이 나오게 된다.

나라에 따라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유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율에 맡기는 나라(영국, 미국)도 있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프랑스, 독일, 일본)도 있다.

4. 근로자 검진의 또 하나의 목적은?

자고로 사업장(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반에 비하여 유해한 환경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에 비하여 건강이 나빠지기 마련이다.

오늘날의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근로자 건강의 희생의 소산물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어느 집단보다도 건강을 살피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산업보전이 뒤떨어진 후진국가에

있어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일년 중에 건강진단의 기회밖에 없으니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 근로자 검진의 시작

우리나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일제시대에도 형식적으로 채용시 검진은 있었으나 노동법이 없었으므로 사업장 자율에 맡겼다.

건국 후 한국동란 중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업장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이 실시된 것은 1963년이다. 이때 노동부는 보건사회부 노동국으로 근로감독관도 몇 명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의 취지를 알 리가 없어 협조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만일 병이 발견되면 해고나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편이었다. 물론 제대로 마련된 검진 차량도 없었다. 그래서 병원 구급차에 X-선 간촬영기를 싣고 사업장에 나가야만 했다. 충분한 장소와 시간과 인력도 없이 시작된 검진이었으므로 형식적인 검진이라는 말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검진은 점차 제도화되어 1973년에는 특수건강진단 규정이 마련되었고 유해부서와 검진항목 그리고 판정기준도 정해지게 되었다.

6. 건강진단을 저해하였던 인자들

그러나 어려웠던 문제는 검진의 본 목적

을 제쳐놓고 검진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사
이비 검진기관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검진비용은 싸게 하고 환자발견은
적당히 보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주에
게 접근하는 소위 검진장사꾼이 출현한 것
이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정확히
검사해주는 기관보다는 이들을 더욱 선호하
였다. 또한 경제개발 도상기에는 이에 장해
를 주는 모든 행위는 국가정책으로 금하고
있었으므로 직업병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다. 이러한 사항은
80년대 중반까지 계속 되었다.

7. 직업병 검진은 산재기금에서

직업병 특수검진은 1차 검진에서 선별된
유소견자들이 2차 정밀검사를 받은 후 그
장해도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의 비용은 산재기금에서 지출되어
야 실시가 수월하고 정확하게 파악도 되기
쉬운데 아직까지 그러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8. 시대에 따라 직업병도 달라지 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출발시부터 관여하여 이제 40년이 된다. 그
간 많은 전문인력이 이 분야에 참여하여 업
적들을 내었고 시대 변천과 산업발전으로
직업병도 재래질환에서 새로운 질병들로 이

동하고 있다.

9. 근로자 검진은 경험 많은 의사 가 금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제 일선에서 은퇴한 필자는 시간이 허
용되는 대로 외국인근로자검진, 고등학교검
진, 기간산업의 직업병 특수검진에 나가 분
다. 그리고 새삼 느낀 것은 건강진단은 임
상전문 진료보다 격식이 떨어지는 일로 생
각하기 쉬운데 건강진단이야말로 경험이
많고 유능한 의사가 할 일임을 통감한다.

집단검진은 의사가 사업장 근로자와 아마
도 대부분은 일년에 한번 그것도 짧은 시
간의 만남의 기회이다. 우리 건강은 누구나
그 생활, 습관, 그리고 특히 근로자에 있어
서는 노동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다.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해주는 의사
로서는 관심만 가지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건강에 대하
여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
른다.

건강진단 사업은 돈벌이를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

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 집단이 안고 있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기여해야 한다. 건
강진단 사업에 종사하는 의사와 요원들은
이러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다. 